

12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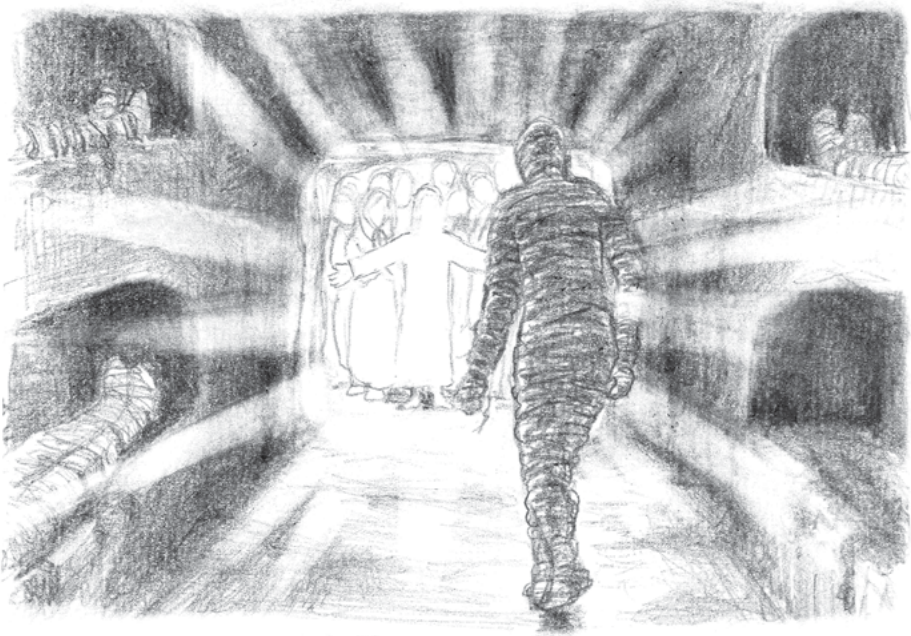
요 11:1~44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 16장 (놀라운 놀라운 날이었네)

오늘 배울



1.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2.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생활 가운데 내가 죽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압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 11:40, 43, 44)



을 이해하기

예루살렘에서 오리즘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내려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 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신이 죽어 있을지라도 실상은 잠자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깨우시면 언제라도 다시 살아 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때였고, 이미 장사가 끝나 시신이 굴로 된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옮겨 놓게 하신 후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하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서 바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죄 사함을 받고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영생을 얻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 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11:25~27)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may die, he shall live.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She said to Him, "Yes, Lord,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n 11:25~27)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요 11:4, 뵤후 1:3~4)?

② 성경에서 ‘잠자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고전 11:30, 살전 4:13~15).

③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를 적어봅시다(요 11:15, 25~27).

④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교제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사 55:3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요 5:2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요 11:2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요 11:26

↓

요 11:40

↓

엡 5:14

↓

살전 5:6



그리스도의 대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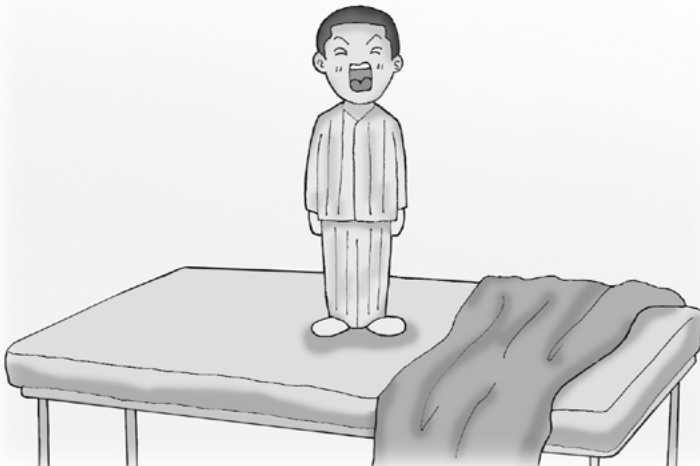
크리미아 전쟁 때 스푸타리의 한 병원에서 어떤 병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지켜보았으나 분명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간호사들이 깜짝 놀랄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기진하여 숨을 헐떡이는 그를 침대에 다시 눕히고 부드럽게 위로한 후, 그에게 뭐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나 연대에서 점호를 받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기에 대답을 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머지 않아 대접호가 취해질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소리를 못 하도록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 3:20)

병원에 가면 약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진찰을 먼저 합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나서 투약을 하든지,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고쳐 주시기 전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상태를 진찰해 주시는데, 그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되며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갈 3:24)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몽학선생(蒙學先生)이란 어린이들의 깨우침을 맡은 초보적인 선생을 말합니다. 정식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전 단계를 가르쳐서 정식 선생에게 인계해 주는 것이 몽학선생의 임무입니다. 그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므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죄를 씻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평생 그것들을 지키려고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마 22:37~39)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지킬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주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일 4:11)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도 합니다.